

선거구획정 기준안 합의 도내 이해득실 어떻게 바뀌나 '촉각'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합의함에 따라 전북 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가 어떻게 바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정가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지난해 10월말 인구기준으로 지역구 인구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 상하한선을 뒀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수 14만명 이하인 지역은 정읍(11만6,378명), 남원(8만5,052명), 김제(8만9,069명), 완주군(9만4,096명), 진안(2만6,196명), 무주(2만5,209명), 장수(2만3,267명), 임실(2만9,375명), 순창(2만9,316명), 고창(5만9,389명), 부안(5만7,002명)이다.

반면 덕진구는 28만1,039명으로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떼어 완산갑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가에서는 인후3동과 진북동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전북지역 선거구는 정읍·남원순창, 김제완주, 무진장림실, 고창

기준인구수 14만명 이하 지역 정읍·남원·김제 등 11곳 기준 5석에서 4석으로 축소 덕진구 인구 상한선 초과 일부 떼어 완산갑 붙일 가능성 26일 상정해 마무리할 듯

부안 등 기존 5석이 정읍고창,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석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안대로 하면 정읍고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정열(64), 최도식(32) 예비후보가 무소속은 김태룡(59), 이강수(64), 김만균(59) 예비후보들이, 국민의당은 유성엽(56)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도내 현역 의원들간 경쟁 예고

김춘진·최규성 대결... 유성엽 시험대에 '초선' 박민수 의원은 완주서 불리 예상

김제부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규성(66), 김춘진(63)예비후보 등이, 국민의당은 이병학(58), 김종화(50), 나유인(59), 권인희(66), 송강(29) 예비후보가, 정의당은 강상구(44)의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김제부안은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간 경선부터가 불거진다.

남원순창임실선거구는 새누리당 김태구(58), 김용호(38) 예비후보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은 장영달(67), 강동원(63), 박희승(52) 예비후보들이, 국민의당은 이성호(52), 이용호(56), 김원종(52)예비후보들이 무소속에서는 노병만(52), 방경태(59), 오철기(47) 예비후보가 예상된다.

문제는 완주진안무주장수이다. 지역에 따라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무진장림실 선거구였던 박민수 의원(51), 안호영(50) 예비후보의 경우는 무

진장을 합친 인구수(7만 4,666명)보다 완주(9만4,096명) 지역 인구수가 많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칫 완주쪽에 기반을 둔 예비후보에게 패할 수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유희태(62), 안호영(50), 박민수(51) 예비후보 등이, 국민의당은 김정호(52), 이돈승(56), 조남수(68) 예비후보들이 그리고 무소속에는 임정엽(56), 김경선(70) 예비후보가 칼날을 세우고 있다.

전주덕진구에 출마선언한 새누리당 양현섭 예비후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해서 다행이다"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철저하게 준비 선거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획정합의안은 중앙선관위 회의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되고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 오는 26일 상정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더민주 최규성 의원, 김제부안 4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이 제20대 총선 김제부안(예정선거구·사진) 출마를 선언했다.

최규성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기쁨을 마련하고 4선의 힘으로 전북과 더불어 성장하는 '더 큰 김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바쁘게 정권에 맞서 변화와 개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수 있는 정당은 80년 역사의 더불어민주당뿐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간선도로 등 김제발전 전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일이 너무 많다"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 4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전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유희태 예비후보 "선거구 획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김제완주·사진)는 23일 여야 합의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데 대해 "민시제안이지만 이제라도 선거구가 확정돼 선거연기의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인구편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게 돼 전북에서는 1석이 감소한 것은 안타깝지만 다행이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차질 없는 선거를 위해 새롭게 확정된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확정된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선거구는 전북면적의 1/3을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다. 낙후의 대명사가 되다시피한 동부산악권에 속해 있다"면서 "이들 지역주민들을 한데 묶고 낙후를 탈피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정동영 예비후보 "일자리 햇볕정책 필요"

국민의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일자리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23일 오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임금법' 제정을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사업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공임대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실상은 반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정부 시행 건설사업 설계에 따르면 덤프터 운전기사 공임이 하루 25만원인데 10만원에 지급되고, 미장공은 15만원인데 7만원밖에 주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된 대로 주어야 국민 누구나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부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시행한 뉴딜 정책은 댐 건설현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의 평균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공정임금법이 바로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성정의 핵심 법률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장세환 예비후보, "자동차세 인하 추진"

국민의당 장세환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완산을·사진)는 23일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대책으로 자동차세 인하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으로 분류돼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 세금만 30%에 이르는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비만에 턱없이 비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공시지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연간 재산세가 20여만원인 반면 배기량 2000cc의 15년식 중고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26만여원으로 수백만원짜리 중고 자동차의 세금이 역대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장 후보는 "중산층 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부담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며 "자동차도 TV와 병장고처럼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해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김원종 예비후보, 사회복지법인협회 감사패

국민의당 김원종 총선 예비후보(남원 순창·사진)가 23일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최일섭 정책자문위원(서울대 명예교수)은 이날 서울에서 직접 남원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김 후보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협회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최일섭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온 김 후보가 퇴직한 것은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도 슬픈 일이었다"며 "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김 후보를 격려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사회복지진과 함께 활발한 사회사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단체다. /김영재 기자



새누리 정운천 예비후보, 방법활동 벌여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완산을·사진)는 지난 22일 전주 서곡방방대원들과 함께 방법활동을 실시했다.

정 후보는 서곡공원을 중심으로 순찰대 활동과 함께, 아난 치안상황을 체험했다.

정운천 후보는 "시민을 위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는 방법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와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여성 청소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에는 총 48개의 자율방방 지구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 지구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 및 여성의 안전취가 등치안공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박종길 예비후보 "일자리 창출할 것"

새누리당 박종길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익산을·사진)는 "낙후된 익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2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제는 시민들의 주인이 돼 변화와 개혁의 주인이 돼야 할때"라면서 "익산시민의 큰 일꾼이 돼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전남 순천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돼 '예산축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 익산시민은 이제야말로 봉곤 결단을 내려야 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태능선수촌장, 런던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신광영 기자



무소속 유종근 예비후보, 27일 선거사무소 개소

무소속 유종근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완산을·사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유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 많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소중의 시간을 갖는데 주력해왔다"며 "집주정제를 살려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많았다. IMF 경제위기에서 나라 경제를 살렸던 유종근이 이제 무슨이러는 전주의 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전했다.

유 후보는 "수 십년간 특정정당에 몰표를 지지해 왔던 결과가 오히려 호남정치에서 조차 소외 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전제한 뒤 "도지사 재임 7년간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전북도민, 전주시민께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전북의 자존심을 살리고 전주의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김용임 예비후보 도의원 출마 공약화

더불어민주당 김용임 도의원의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사진)가 전북도의원 익산 제4선거구(동산·여양·영등동·팔봉동) 보궐선거에 '소통과 화합, 지역을 살리는 여성정치!'를 모토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익산시청 상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아이와 여성이 함께하는 지방정치로 익산의 꿈과 희망을 키워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교육자로서, 엄마로서 살면서 느낀 생각들을 실현하고 변함없는 실천으로 살리고 싶은 익산,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익산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에 임원하게 보여 드리겠다"며 "익산 최초 여성도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굳게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도내 선거구획정 기준안 합의 환영

선거구획정 기준안 합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도내 11개 의석이 10석으로 줄어드는게 안타깝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금이라도 합의돼서 천만 다행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농어촌지역구 의석수 축소 움직임에 맞서 국회의원의 긴급 간담회와 농어촌사수 쉼기대회, 당대회 면담,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전북지역의 의석수 감소 최소화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다"며 "그동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양현섭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덕진)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여, 아의 4.13 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전북의 선거구가 10석으로 1석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여,아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참예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사익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 민생투어 시작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국민의당" 민생투어를 시작한다.

이번 민생투어는 사회 민부격차와 뿌리 깊은 차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당원과 시민과 함께 매주 전북 각지역에서 개최된다.

민생투어 1차는 '제2동학혁명,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주제로 정읍 현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민생투어에는 정동영 전 의원을 비롯해 김광영 도당위원장 유성엽 국회의원과 전북지역 예비후보자, 당원,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산경위, 시제품제작소 현장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23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별관에 위치한 전북시제품제작소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지 의정활동은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캠퍼스융합기술원 등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이들은 전북시제품제작소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전북시제품제작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간 도비 30억원이 투자됐고 도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고전분부하는 제조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제작 전문가서비스와 셀프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박종열 도의원 예비후보 "유모차 지원 서비스 확대"

국민의당 박종열 도의원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사진)는 "현재 익산시에서 유모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모차 지원해주는 규모가 작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박 후보는 "2015년 320만 원의 예산으로 167구에 혜택이 돌아간 상태"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2014년 출생자 수는 2257명이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현재 차상위·한 부모 가정·다문화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확대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유모차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